

조선시대 홍양현의 녹도수군진 연구*

송 은 일**

- I. 머리말
- II. 녹도수군진 설치 배경과 홍양지역 수군진
- III. 녹도수군진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 실태
- IV. 녹도수군진의 활약
- V. 맺음말

국문초록

녹도수군진은 조선 초기 즉 1398년(태조 7)경 이전에 설치되어 1895년 군제 개편 시 폐진 되었다. 녹도진 설치 배경에는 이 수군진 일대가 왜적의 주요 통로, 해양 방어의 요충지였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던 것, 조양현과 보성군의 출입 해로였던 득량만에 출몰하는 왜구 방어와 함께 목장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녹도진의 기능은 해양 방어, 병선 건조와 관리, 목장 관리, 봉수 또는 요망대 관리, 송전 관리, 유배인 관리 감독, 조운선 호송 등이 있었다. 녹도진 설치 당시에는 수군·인리가 500여 명, 1457년(세조 3) 1월경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3467).

**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 / sei0005@naver.com

770여 명, 『경국대전』이 완성될 시기에는 340여 명이 활동했었는데, 이 상태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녹도진이 설치된 시기에 이 수군진 만호는 중선 6척 별선 2척, 1429년(세종 11)경 중선 4척과 별선 4척, 『경국대전』이 편찬될 시기에는 대맹선 1척, 중맹선 2척, 소맹선 3척, 무군맹선 3척을, 명종대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을 지휘하였다. 그런데 이것들은 19세기경이 되면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녹도진에는 진성이 있었다. 이것은 성종대 전국 수군진의 축성사업의 일환으로 축성되었는데, 그 시기는 1485년(성종 16)경이었다. 19세기 기록에 따르면 녹도진에는 공공건물이 즐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일부 공공건물은 손상을 입어 퇴락한 상태로 방치되기도 하였다. 녹도진의 재정 운영 상태는 상부 기관에 상납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웠다. 이것은 당시 녹도진의 아전배와 노복들이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 버려 여러 관청이 텅 빈 가운데 지휘관인 만호가 먹고살기도 막연한 상황이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었다.

녹도진은 평상시 수많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다양한 해전을 치렀다. 그 때문에 평소에 군비 확충 및 정비와 수군의 훈련 등을 강화하여 전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시 조선 수군이 승리하는데 주도적 활약을 할 수 있었다.

◆ 주제어

녹도수군진, 홍양현, 해양 방어, 임진왜란, 해전

I. 머리말

녹도수군진(이하 녹도진)은 조선시대 흥양현(현재 고흥군 일원)에 위치하였던 일선 수군진 가운데 하나였다. 처음 설립된 시기는 조선 초기였으며, 조선 말 군제 개편이 있었던 1895년경에 폐진되었다. 옛 鎭城의 흔적이 고흥반도의 서남쪽 득량만 초입부인 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전한다. 나지막한 구릉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빙 둘러서 있는 석축과 성지가 바로 그곳이다. 이곳은 동쪽으로는 봉화산과 거금도(절이도), 전면에는 소록도가 가로막듯이 들어앉아 있고 良港의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천연의 요새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녹도진은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이자 전라좌도에서 우도로 통하는 해로이면서 남해안의 연안 해로를 제어할 수 있는 요충지로서 조선시대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이하 전라좌수영) 관하의 수군진 중 하나였다. 특히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전라좌수군 소속으로 국난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녹도진의 역할과 역사적 가치가 이러함에도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 수군진 옛터 위치가 접근이 쉽지 않은 지방에 존재한다는 것과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연구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평상시 남해안 최일선에서 해양방어에 전력을 다하였다는 것, 임진왜란 같은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단연 도드라진 활약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전통 시기 지역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라도 녹도진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녹도진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

기존에 녹도진에 대해 다룬 본격적인 연구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¹⁾

1) 기존에 녹도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는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녹도진 외 여타 수군진 관련 연구성과가 있는데 그것은 변동명, 「조선시대 돌산도 방답진의 설치와 그 구조」, 『한국사학보』 27, 고려사학회, 2007; 「조선시대 돌산진과 고돌산진」, 『역사학보』 198, 역사학회, 2008; 김경옥, 「16~17세기 고금도 인근 해로와 수군진의 설치」, 『도서문화』 3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9; 변남주, 「영광 범성포 조창과

다만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진 유적지 조사내용을 작성하면서 녹도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경우는 있다.²⁾ 그러나 이것은 녹도진의 관련 자료와 유적지 조사 내용 등을 나열한 수준이어서 이 수군진에 대한 전반적인 존재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관 자료 등을 토대로 녹도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녹도진의 설치와 경위 그리고 폐진될 때까지 그 추이를 현 고흥(홍양) 지역에 설치되었던 수군진과 연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설치 시기를 비롯하여 그것의 과정 및 원인과 경위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통 시기 연안항로 상 거점지역이면서 요충지였던 현 고흥 지역의 중요성과 함께 녹도진의 설치 의미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녹도진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하겠다. 녹도진의 기능을 비롯한 수군 조직이나 무장 설비라든지 진성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알아봄으로써 이 수군진 내부 양상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셋째, 녹도진의 활약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 평상시와 임진왜란 당시 녹도진은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 수군진의 활약을 비롯한 그것이 지닌 의미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이 녹도진의 실체를 알아보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수군진의 변화, 『도서문화』 4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4; 신윤희, 「임진왜란시 경상우도 수군진 위치 고찰」,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6,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9; 「조선초기 전라우도 수군진 설치 및 연혁 검토」, 『역사와 실학』 79, 역사실학회, 2022; 송기중, 「조선 후기 전라도 도서 지역의 수군진 설치와 민역관리」, 『영도해양연구』 26, 동북아역사재단, 2023; 박주미·고광섭, 「이순신의 전쟁 대비 전라좌수영 수군진 운영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12집 4권(통권 28),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2023; 남호현, 「고려말~조선전기 수군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의 특성」, 『해양문화재』 1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고흥군·순천대학교남도문화연구소, 『임진왜란과 고흥』, 도서출판 누리기획, 2002, 59~63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I(전라좌수영편), 2014, 164~184;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신윤희 편저, 『임진왜란 시기 수군진 조사 자료집Ⅳ-전라좌수군』, 2021.

II. 녹도수군진 설치 배경과 흥양지역 수군진

고려말에 재건된 수군은 조선이 건국된 직후부터 지방군의 증강 방침에 따라 육군과 함께 더욱 확충되고 정비되어 갔다.³⁾ 것처럼 수군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국의 해안 요새 지역인 포구를 거점으로 수군진이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 고흥 지역은 왜구의 출입이 잦은 要路였다는 것과 병선을 정박하기 편리하고 적합한 여러 포구가 있었다는 것 등이 고려되어 이른 시기부터 수군진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수군진은 현재 고흥군 도양읍 비봉리 일원에 존재했던 녹도진과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일원에 존재했던 축두수군진(이하 축두진)이었다. 이 수군진 중 녹도진은 1406년(태종 6)경, 그리고 축두진은 1430년(세종 12)경 사서에 처음 등장한다. 이것을 보면 이 녹도진은 태종대 축두진은 세종대에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396년(태조 5) 말경에 전국적으로 군선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⁴⁾ 고려한다면 이 두 수군진은 1398년 즈음 아니면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현 고흥 지역에 수군진이 들어서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곳에 왜구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이다. 녹도진은 예로부터 賊路의 요해지로 알려져 있었다.⁵⁾ 따라서 이 지역은 수시로 왜구의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초 녹도진 인근에 존재했던 고흥현이⁶⁾ 왜구의 침입 때문에 보성군 속현이었던 조양현으로

3) 조선시대 수군 제도는 고려 말 수군 제도를 계승하였거니와, 태조대에 기반을 다진 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세종대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김재근, 『조선왕조군선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6, 18쪽. 이와 관련하여 1398년 윤5월 즈음에는 만호, 천호, 백호, 등 수군의 품계를 정하기도 하였다는 것도(『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윤5월 16일[신묘]) 참고된다.

5) “然全羅左道主鎮突山浦, 呂島, 鹿島等鎮, 賊路要害之地(『성종실록』 권290, 성종 25년 5월 11일[무술]).”

6) 이 시기 현 고흥 지역은 고흥현을 비롯하여 7개 현이 존재했다. 고흥이 흥양현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행정단위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1441년(세종 23년)이다.

잠시 치소를 옮겼던 것은 이곳에 왜구의 침입이 어느 정도였던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⁷⁾ 둘째, 이 지역이 남해안에서 서해안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할 때 해로 상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곳은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이자 전라좌도에서 우도로 또는 그 반대로 통하는 해로의 길목이면서 남해안의 연안 해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자연적 요충지였다. 특히 현 고흥 지역에서도 녹도진 일원은 연안항로 상 거점지역이면서 전라우도와 좌도의 경계 지점에 위치에 있어서 왜구가 연안을 통해 서해로 진입할 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중요 통로였다.

당시 전라좌도에서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해로에서 왜구의 주요 통로는 전라좌도의 최일선이었던 방답진(현 여수 돌산읍 군내리)으로부터 시작하여→백야도(현 여수 백야도)→나로도(현 고흥 나로도)→녹도진·절이도 일원(녹도진 앞에 섬: 현 고흥 거금도[금산면])→고금도진 일원(현 완도군 고금도면)→가리포진 일원(현 완도읍 일원)-명량(현 해남과 진도 사이 협수로) 등으로 이어진다.⁸⁾ 여기서 특히 여수 방답진 일원, 홍양(현 고흥) 녹도진과 절이도 일원, 완도 가리포진 일원 등은 왜구가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속적으로 침입하는 여러 해로 중의 하나에 속하였다.⁹⁾ 이는 명량해전 직전 일본군이 서해안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이러한 지역을 통과했었다는 것과 명량해전 직후 일본군이 서해안 진출 가능성

당시 전라도 장흥도호부에 소속된 고흥현을 비롯하여 두원현, 도양현, 그리고 보성군의 屬縣이었던 태강현, 남양현, 풍안현, 도화현을 통합하여 홍양현이라 지칭한 것이 그것이다. 이 홍양현의 명칭은 고흥군과 남양현에서 따온 것이다.

- 7) “… 改稱高興縣 本朝太祖四年乙亥 因倭寇寓于寶城郡屬縣朝陽縣之地 … (『세종실록』 권151, 전라도 장흥도호부 고흥현).”
- 8) 이 해로는 전통 시대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연안항로로 조선수군, 세운선, 어선 등은 물론이고 왜구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통로였다고 생각되거나 현재에도 연안 여객선들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다.
- 9) “今上(中宗) 十八年 以賊路要害 設鎮 置僉事一人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관방 방답진 夾註); “今上(중종) 16년 以倭寇要路 始設鎮 置僉事一人 并合達梁水軍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7, 강진현 관방[신증] 가리포진 협주);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5월 7일(임자).

유무와 조선 수군 등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해 녹도진 관하 절이도 일대를 침입하였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 해로가 정유재란 시 조명연합수군이 四路竝進作戰의 일환으로 왜(예)교성을 공격하기 위한 출전로였다는 것도 참고할 일이다. 당시 왜구는 대체로 이같이 일정한 해로를 통하여 출몰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니와¹⁰⁾ 그 통행을 제압하기 위해 각 주요 요충지에 수군진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녹도진도 그 같은 배경에서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녹도진 인근 조양·보성지역 진입 해로인 득량만 일대의 왜구 침입과도 관련이 있는 듯한데, 다음의 내용은 그것을 알려준다.

洪應이 또 전라도·경상도 백성의 申訴를 채택하여 書啓하기를, “전라도 보성군 백성의 狀告에 이르기를, 이 고을에는 옛 兆陽城(필자 주: 옛 동로성)이 있는데, 지금은 무너진 데가 있기도 하나, 대개는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회령포·녹도 등이 조양의 바다 어귀에 있기는 하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섬들도 많아서 적선이 몰래 정박하였다가 어두움을 타고 침입하면 구원할 길이 없으니, 모름지기 조양 城子를 다시 쌓아 순천진에 머물러 防戍하는 정병 2려 중에서 1려가 지켜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 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제1조 보성군 조양의 옛 성자를 쌓는 일은 참으로 백성이 狀告한 것과 같이 비록 회령포·녹도에서 바다 어귀를 鎮戍하더라도 뜻밖의 변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쌓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¹¹⁾

위 사료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양현의 무너진 성자(필자 주: 옛 동로성)를 보수하자는 것과 그곳에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 회령포진과 녹도진이 바다 입구(현 보성군 득량만 입구)에서 파수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조양은 조선시대 조양진 또는 조양현으로 현 보성군 조성면 일대이다. 이곳은 북쪽으로는 매봉산, 주월산, 병풍산, 봉두산 등이 빙 둘러 외호하고 있고 그 앞에는 읍치가 있으며 주위에는 나지막한 구릉과 농지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 득량만을 품에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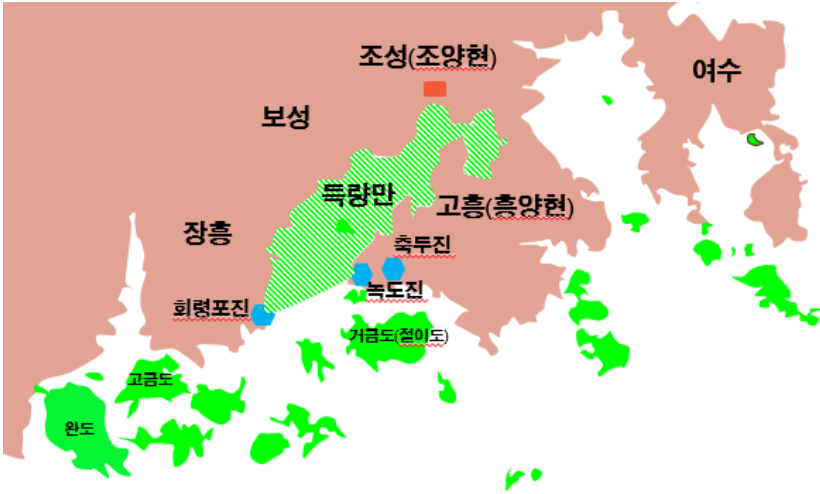
10) 『성종실록』 권248, 성종 21년 12월 13일(경신);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28일(계유);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7월 26일(계유).

11) 『성종실록』 권176, 성종 16년 3월 25일(병오).

은 듯하고 있다. 그리고 득량만의 위치는 현 고흥군 도양읍과 장흥군 회진면 사이에서 옛 조양 치소(현 조성면사무소 일원)가 있었던 곳까지 내륙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포구이다. 따라서 外海에서 조양 또는 보성의 내륙으로 아니면 그 반대로 진출하려면 득량만을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¹²⁾ 이 득량만 일대는 지정학적으로 전통 시대 선박의 출입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인구가 밀집되었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시골 나름의 제법 변화한 도회지의 모습을 하는 가운데 읍치의 일부를 이루면서 지역사회 중심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곳은 물산이 모여 들거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때문에 현 보성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및 행정·군사적인 중심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¹³⁾ 당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왜구의 침입이 잦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이곳이 왜구가 침투하기에 편한 해로 상의 길목에 위치한 가운데 제법 많은 주민이 모여 살고 있어서 그만큼 여러 가지 문화가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득량만을 안고 있는 조양 나아가 보성지역은 고려말 조선 초 창궐하던 왜구의 처지에서 여러 가지로 침입하여 노략질하기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12)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 유민들이 이 득량만을 통해 일본으로 망명길에 올랐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전통 시대 이곳이 상당히 변화한 포구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참고할 일이다.

13) 득량만이 전통 시대 때 사회·경제적 및 행정·군사적 중심지였던 여수의 장생포 지역과 거의 동일한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림1〉 보성군 ‘독량만’ 위치도

이렇게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¹⁴⁾ 독량만의 출구를 방어하던 수군진이 바로 녹도진이었다. 따라서 녹도진의 설치 배경에는 독량만을 통해 조양과 보성지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사전에 방어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녹도진을 설치한 것은 조양과 보성의 출입 해로였던 독량만에 출몰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살폈다.

넷째 왜구의 단속적인 침입으로 말미암아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도 녹도진을 설치하였던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牧場이 둘이니, 道陽串(國馬 421匹을 放牧한다), 弓瑟串이다(말이 134필이다).
關防은 鹿島·會寧浦 등 두 포구다(병선이 머무른다).¹⁵⁾

14) 조선 초 독량만 북쪽 끝자락 일원에 있는 조양진에 왜선이 침입하여 병선 1척을 불태웠고 이로 인해 죽은 자가 35명이었다고 하는데(『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1월 23일(임신), 이것은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당시 그곳에 왜구가 수시 또는 단속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15)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위 사료에 등장하는 도양곳은 목양지로 녹도진이 설치되었던 주변을 포함한 현 고흥군 도양읍 일대다. 도양목장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위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 내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편찬되었던 시기 즉 1432년(세종 14)¹⁶⁾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구의 침입이 매우 자심했었다. 특히 도서나 연안 지역이 더욱 그러했다. 이 시기 일부 도서 지역의 군현이 왜구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륙으로 옮겼을 정도였으니¹⁷⁾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쉽게 짐작된다. 이렇게 왜구 침입 피해 때문에 군현 등이 내륙으로 옮길 정도였다면 목장의 피해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녹도진 인근에 있었던 완도 일원의 조약도, 신지도, 고이도 등의 목장 주위에 왜구의 침입이 많아 말 상태를 점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 목장을 내륙으로 옮길 것을 건의했던 사실은¹⁸⁾ 주목된다. 이것은 당시 녹도진 일원 목장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한다면 녹도진이 설치되었던 배경에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목장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녹도진이 설치된 배경에는 녹도진 주둔지 주변이 왜구의 요로, 해양 방어의 요새지였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던 것과 함께 목장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 의해 설치되었던 녹도진은 인근의 축두진과 함께 전라좌도의 해양 방어 임무를 온전히 맡게 되었다. 특히 녹도진의 경우

16) 『세종실록』에 편입된 지리지는 1432년(세종 14년)에 편찬되었는데 그곳에 반영된 시기의 하한도-양계 신설 군·현을 제외하고는 대략 1430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9쪽).

17) 조선 초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해양이나 연안 지역에 있었던 군현이 그 치소와 백성들을 내륙으로 옮겨 僑寓한 예가 많았다(김동수, 「조선초기 군현 치소의 이설」, 『전남사학』 6, 호남사학회, 1992, 19쪽: 예를 들면 진도군과 돌산현 등이다(『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26일 [경오]).

18)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7월 5일(기미).

전라좌도와 우도의 경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좌도 측면에서 보면 최후방을 우도 측면에서는 최전방의 해양 방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이렇게 녹도진이 설치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좌도를 총괄하는 전라좌도 도만호수군진이 현 고흥 지역에 설치되었다.

전라도 감사가 병조의 관문에 따라 장계하기를, “도내 각포 병선을 옮겨 정박하는 것에 대한 편의 여부를 신이 도절제사 문효종과 함께 현장을 방문 시찰하고 이를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고합니다. 좌도의 내례포와 돌산은 상호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양쪽 포의 병선이 모여서 머물기가 불편하고, 순천 장생포에 지금 머물러 있는 돌산만호의 병선 4척을 용문포에 옮겨 정박시키고, 그 용문포에 현재 머무는 도만호의 병선은 좌도 중앙부에 있는 여도에 옮겨 정박시켜서, 도만호가 순환하면서 방어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 “장계를 올리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⁹⁾

위 사료는 전라좌도 각 수군진에 있는 병선 이동, 즉 수군진 재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현 고흥 지역과 관련된 것은 전라좌도를 총괄하던 전라좌도 도만호의 병선을 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일대(용문포)에서 현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일대의 여도로²⁰⁾ 옮기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도만호 주둔지가 전라좌도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도만호가 전라좌도를 순환하면서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괄하기가 불편했었기 때문이다. 즉 전라좌도 도만호 주둔지를 전라좌도의 정 중앙에 위치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해양 방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했었다. 이 도만호진은 당시 전라도 수군 전체를 지휘하는 수군처치사 바로 아래 수군직으로 전라좌도 8개 수군진 즉 녹도·축두·회령포·달량·마도·어란포·내례·돌산수군진 등을 총괄하는 巨鎮이었다.²¹⁾ 이렇게 고흥 지역에 전라좌도 전체를 관장하는 도만호진이 들어

19)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25일(을축).

20) 이 시기 여도는 행정구역상 보성군 관할이었으나 1441년(세종 23년) 현 고흥 지역에 흥양현이 들어서면서 흥양현 관할로 되었다.

서게 된 것은 이곳이 새로운 해양 방어의 요충지로 떠올랐기 때문이거니와, 그것은 이 일원이 왜구의 출몰이 잦았고 한편으로 군사적 요해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같이 도만호 주둔지가 현 여수지역에서 고흥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에 고흥 지역 전체의 해양 방어를 전담하고 있었던 녹도진과 축두진은 이제 그 범위가 약간 축소되어 도만호 주둔지 서쪽 지역만을 맡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당시 고흥 지역에는 2곳의 만호진과 1곳의 도만호진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은 해양 방어 차원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고흥 지역에 여도도만호진이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수군진이 증설되었는데 사도진이 그것이다. 이때 이 수군진은 여도도만호진의 병선 및 축두진 병선과 수군 일부를 이동시켜 설치하였다.²²⁾ 이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것은 사도 지역이 요해처였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²³⁾ 사도 지역은 양항의 조건은 물론이고 지형적으로 먼 외해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 수군진을 설치한다는 것은 방어하기에 편리한 內海에서 외적의 습격을 기다려 소극적으로 수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외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에 해로를 선점하고 외적이 출몰하는 초기부터 그 기선을 제압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이것은 왜구 대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사도진은 수군과 군선만 보유하면서 여도의 도만호가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이 사도진이 설치된 지 얼마 후 고흥 지역에 또 하나의 수군진이 설치되었는데, 현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일원에 존재했었던 발포진이 그것이다. 이 수군진은 기존에 만호가 주둔하였던 소흘포가 방어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 설치 배경이었다.²⁴⁾ 이렇게 해서 이 당시

21)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22)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12일(정해).

23)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7월 8일(갑오).

현 고흥 지역에는 5곳의 수군진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전라좌도 내지는 남해안 일대에서 새로운 해양 방어 군사기지로 떠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속해서 증설되었던 현 고흥 지역의 수군진은 세조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457년(세조 3) 축두진이 본진과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녹도와 발포진이 있다는 이유로 폐진 되었다.²⁴⁾ 이어 전라좌도 수군을 총괄하고 있었던 여도도만호진이 만호진으로 강등되었던 반면, 그동안 수군과 군선만 보유하면서 도만호가 관장하고 있었던 사도진이 첨절제사가 주둔하는 수군진으로 승급되었다. 이것은 우선 당시 정세변화에 조용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왜구 침입 대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존에 군익도체제였던 지방 군제가 진관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수군 지휘체계마저 변화되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라좌도 수군을 총괄하는 사도진은 예하에 녹도·축두·회령포·달랑·마도·어란포·내례·돌산만호 등 8개 수군 만호진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현 고흥 지역 수군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상황이 벌어졌는데, 1479년(성종 10)에 전라도의 수군사령부가 2곳으로 분리되면서 전라좌도에는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이하 전라좌수영), 전라우도에는 전라우도수군절도사영(이하 전라우수영)이 신설되었던 것이 그것이다. 기존에 전라도 수군은 수군처치사 내지는 수군절도사 1인 아래 전라좌도와 우도 도만호 또는 첨절제사 2인이 예하 만호진을 지휘하였는데, 이제 주진을 전라좌수영과 전라우수영으로 분리하여 통솔하는 이원적 체제가 되었고 전라좌수영(현 여수)은 사도진관을 전라우수영(현 해남)은 임치도진관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기존에 전라좌도 만호진을 관장하던 고흥 지역의 사도진은 여전히 녹도·축두·회령포·달랑·마도·어란포·내례·돌산만호 등 8개 만호진을 거느리는 위상은 유지하였다. 그런데

24)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4월 11일(무자).

25)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1월 16일(신사).

1522년(중종 17) 전라우수영 예하에 침절제사가 주둔하는 가리포진(현 완도)과 전라좌수영 예하에 침절제사가 주둔하는 방답진이 신설되면서 사도진 편제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었다. 즉 가리포진이 신설되면서 사도진 관할이었던 마도진과 달량진을 가리포진에 합속하였고,²⁶⁾ 방답진이 신설되면서 사도진 관할 돌산진이 혁파되어 전라병영 관하의 순천진 관에 배속되었던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진 관하에는 회령포·녹도·발포·여도 등 4곳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현 고흥 지역에는 사도, 녹도, 발포, 여도 등 4개의 수군진만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수군진이 존재했었던 현 고흥 지역은 을묘왜변(1555년, 명종 10) 직·전후로 방어체계가 기존의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 체제로 변화하면서 수군 편제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었다. 진관체제 하에서 현 고흥 지역 수군진을 관할하였던 전라좌수영은 관할 지역 수군진만을 진관조직으로 편제하였다. 그런데 제승방략 체제로 바뀌면서 전라좌수영은 관하 수군진 뿐만 아니라 주변 연해 지역 각 읍에까지 수군 기지를 설치하여 편제하고 관리하게 되었다.²⁷⁾ 이에 전라좌수영은 기존의 수군진 방답·사도·여도·발포·녹도·회령포수군진과 주변 고을인 순천부·장흥부·보성군·낙안군·홍양현·광양현 지역까지 확대하여 총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고흥 지역에는 기존에 사도진·녹도진·발포진·여도진 등 4곳을 비롯하여 홍양현 읍수군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에 존재했었던 수군진의 위치를 살펴보면 연안을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배치되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국방선을 이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였다.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영암군 관방 달량영: 권37, 강진현 관방 가리포진;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1968, 286쪽.

27) 조원래,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정문사, 1993, 26쪽.



〈그림2〉 조선시대 현 고흥 지역의 수군진 배치도

이렇게 고흥 지역의 수군진이 증설 또는 일부 폐지되고 한편으로 전라좌도 수군의 통솔체제 변화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녹도진은 최 일선의 만호진으로서 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신설될 때부터 변함없이 그 임무와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수군진이 녹도진이었다. 그리고 이 녹도진을 비롯한 현 고흥 지역의 수군진은 임진왜란 시 전라좌 수군의 핵심으로 여러 해전에서 승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에도 녹도진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해방 임무 등에 힘을 다하였으며, 조선말 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고흥 지역의 여타 수군진들과 함께 폐지되었다.

Ⅲ. 녹도수군진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 실태

수군진의 기능에 대한 것은 모든 수군진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여건이

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녹도진 기능 역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녹도진의 상황을 기록한 「녹도진진지급사에게 특성책」과 유관 자료를 토대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녹도진의 기능은 군사와 행정적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녹도진의 군사 기능은 첫째, 해양 방어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부터 왜구들의 요로나 연해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에 수많은 수군진을 설치하였다.²⁸⁾ 이렇게 설치된 수군진은 해양 방위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 수군진에게 해양 방어와 관련된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였고 그것을 평가해서 일선 수군진의 첨사·만호에 대한褒貶이 정해졌는가 하면, 나아가 지휘관의 승진 여부까지 판단하였다. 녹도진은 첨절제사가 주둔하는 사도진관 예하에 속하였는데 그곳 군관을 비롯한 지휘관의 포폄은 처음에는 전라좌도도만호가 전라좌수영이 신설되면서부터는 전라좌수사가 맡고 있었다.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이 흥양(현 고흥) 지역의 전비 상태를 점검하러 갔다가 사도진의 준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곳의 지휘관 김완을 소환하고, 그 아래 교수와 衙吏들을 문책하거나 처벌하였던 일은,²⁹⁾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 이 같은 경우는 첨사 또는 만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主鎮의 지휘관인 도만호나 수사에게도 적용되었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손죽도사건이 끝난 후, 해양 방어 실패와 군율을 어긴 전라좌수사 심암을 참수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³¹⁾

둘째, 병선 건조와 관리 등의 기능이 있었다. 녹도진 지휘관이었던 만호는 군선 4~9척을 지휘하였다. 이 군선들은 녹도진 만호의 지휘 아래 해당 녹도진 선소에서 新造 또는 改槳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신(개)조와 개삭 시기가 도마다 다르지만, 전라도의 전선·병선·방선은 신조한지 3년마다 3번 개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28)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29) 『난중일기』 1592년 2월 25일.

30) 『영조실록』 권111, 영조 44년 10월 23일(정축).

31)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28일(정사).

12년 차가 되면 개조 또는 신조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군선들은 연한이 되면 손상 여부를 주진의 수사가 직접 판단하여 신조나 개삭 여부를 결정하여 조선 조정에 보고하게 되었다.³²⁾ 그러면 조정에서는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각 수영에 관문으로 지시하였고, 수사는 이것을 토대로 관하 수군진에 신조 또는 개삭의 척수를 배정하였다. 각 수군진에서는 수사의 결정에 따라 수사 휘하의 첨사 또는 만호의 지휘 아래 개삭이나 신조 등이 이루어졌다. 녹도진을 비롯한 여타 수군진도 개삭과 신조에 관한 규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그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전선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목장 관리의 기능도 있었다. 목장의 목양 등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는 감목관이었다. 그런데 이 감목관은 수군진 첨사 또는 만호 등이 겸직하는 예가 있었다.³³⁾ 따라서 녹도진 만호 역시 이 수군진 일원에 설치되었던 목장 관리를 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 녹도진에 존재했었던 현 고흥 지역에 목장은 10여 곳이 넘었는데, 도양·절이도·소록도·시산도·녹도·마질도(맛도)·적마도·평내이도·사일매도·나로도목장 등이 그것이다.³⁴⁾ 이 목장들은 대부분 녹도진 관하에 있었다. 따라서 녹도진에서 이 목장들의 목양에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외적이거나 외부로부터 목장을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순천부 관하 백야곶목장에 호랑이 기습이 있었을 때 수군진 만호로 하여금 수군을 동원하여 포획하도록 조치하였던 사례는 참고할 일이다.³⁵⁾

넷째, 녹도진에서는 봉수도 관리하였다. 당시 현 고흥 지역에는 팔영산·천등산·장기산·수덕산·마복산·유주산 봉수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녹도진이 관할하던 봉수는 이 수군진에서 6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장기산 봉수였다. 이 봉수에는 守直卒 5명과 별장 1명이 지키고 있었

32) 『대전회통』 권4, 병전, 병선.

33)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1월 8일(경신).

34) 『증보문헌비고』 권124, 병고17 부록 목장 및 폐목장.

35)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 12월 22일(을축).

다.³⁶⁾ 봉수 근무 요원은 재간 있고 부지런한 관리 각 4인을 監考로 정하고 2회로 나누어 상호 교대하면서 점검하도록 했었다.³⁷⁾ 그리고 이에 관한 결과는 매년 말에 병영문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³⁸⁾

이 봉수군은 다른 역에 충정할 수 없었다. 이는 봉수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봉수군의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해 봉화가 끊어졌다면, 그 지역 수군진의 지휘관이나 수령은 장 80대, 감고는 장 100대, 봉수군은 장 100대에 더하여 매우 취약한 변방에 充軍되었다. 그리고 봉수군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금으로 면할 수 없고 장형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봉화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 담당 봉수군을 즉시 참형에 처하고 조선 조정에게 보고하게 되었다.³⁹⁾

다음은 녹도진의 행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첫째, 녹도진은 군 선을 건조하거나 궁궐 또는 지방관청 등을 건축하기 위해 국영 송전 관리 의무가 있었다.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에 의하면 녹도진에서는 주위가 30리인 절이도와 도양면에 소재하는 주위 20리인 의송산 두 지역의 松政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녹도진 관할 도서 지역과 연해 지역에는 다수의 ‘船材處’ 또는 ‘船材長養之處’가 있었는데⁴⁰⁾ 이곳의 소나무도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송전에 관한 관리 규정은 매우 엄격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전라좌수영 관하 광양현의 선채처(송전) 관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선채처에서는 근무상황을 매년 6월과 12월에, 선채처 내의 식목 상황과 수목의 종류 파악은 매년 정월과 10월에 전라좌수영의 전라좌수사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또한 연말에는 「式年宜松案改案」을 작성해서 전라좌수사에게 보고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소나무 관리와 향후 개선

36)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37) 『대전회통』 권4, 병전, 봉수.

38) 이상은 『호남읍지』(규 12188, 1895년 찬) 「가리포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39) 『대전회통』 권4, 병전, 봉수.

40) 김정호 편, 『전남의 지도』, (사) 향토문화진흥원, 1994.

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외에도 전라좌수사가 새로 부임할 경우 송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宜松山任掌姓名成冊」을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선재처의 화재·투작·선재 수량과 식재 파종 여부 등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면 전라좌수사는 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수인계하였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향색 및 임장은 물론이고 관할 수령까지 단죄하거나 파면 조치하였다.⁴¹⁾

둘째, 녹도진은 유배인을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있었다. 녹도진은 이 수군진 관할지역으로 유배자들이 정배되면 그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조선 말기 녹도진 관할 지역에는 유달리 유배자들이 많았는데,⁴²⁾ 이 진은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일로 자연 수군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운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호송하는 기능도 있었다. 수군 營鎮의 수사, 첨사, 만호 등은 조운선이 관할 해역을 운항할 경우 그 경내를 벗어날 때까지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게 호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⁴³⁾ 만약 호송의 잘못으로 인해 기한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 관련 수군은 물론이고 지휘관까지 엄벌에 처하게 되었다.⁴⁴⁾ 이 외에도 녹도진에서는 다양한 행정 업무와 대관 업무 등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녹도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수군진 설치의 최대 목적은 해양 방어에 있었다. 그러나 수군진이 행정 업무 등에 치우치다 보니 자연 본연의 임무인 해양 방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제 녹도진의 조직 및 운영과 실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녹도진이 설치될 당시에 이 수군진의 조직을 보면 천호 또는 만호 1인에 선군 483명과 사공 4명이 배속되었다.⁴⁵⁾ 그런데 여기에는 人吏가

41)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군선 목재 관리와 조달」, 『해양문화연구』 4, 2010,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134~136쪽.

42) 고종대 기록은 보면 매년 다수의 유배자들이 녹도진으로 정배되었다.

43) 노미화, 「조선후기의 조운제도에 관한 소고」, 『녹우회보』 19, 1997, 이화여자대학교, 131쪽.

44) 『반계수록』 권3, 「전제후록」 상; 『대전회통』 호조, 조운.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여지도서』에 의하면 녹도진에 인리라고 여겨지는 인원이 50여 명 배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⁴⁶⁾ 이를 토대로 하여 당시 녹도진 수군·인리를 추산하면 대략 530여 명이 배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인원은 당시 전라좌도 여타 일선 수군진에 비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적은 편이다.

그런데 1457년(세조 3) 1월경 녹도진의 배속 인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녹도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던 축두진이 본진과 거리가 멀지 않고 바로 인근 동쪽에는 발포진이 서쪽에는 녹도진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군진을 혁파하여 그 선군을 발포진과 녹도진에 배속시켰던 것이 그것이다.⁴⁷⁾ 이때 혁파되었던 축두진은 선군 483명 사공 4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발포·녹도진에 나누어 배속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녹도진의 경우 770여 명의 수군·인리가 배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녹도진의 이러한 상태가 어느 시기까지 유지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찬술될 당시 녹도진 만호가 대맹선 1척, 중맹선 2척, 소맹선 3척, 무군소맹선 3척을 지휘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대맹선에는 80명, 중맹선에는 60명, 소맹선에는 30명의 수군이 배정되었다.⁴⁸⁾ 이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이 시기 녹도진의 수군은 290여 명 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인리 약 50여 명을 합하면 당시 녹도진은 대략 340여 명의 수군·인리가 활동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녹도진은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 수군 군역이 재정비되면서 수군·인리가 감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태는 임진왜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현 고흥 지역에 있었던 수군진 5곳(홍양읍 수군 포함)이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 시 동원되었던 수군을 추산해 보면

45)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46) 『여지도서』 전라도 홍양현 진보. 녹도진 설치 당시 관련 기록에 인리가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지도서』에 나타난 녹도진의 인리에 대한 기록은 그것을 보완해 준다고 생각한다.

47)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1월 16일(신사).

48) 『세조실록』 권40 숙종 30년 12월 28일(갑오).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녹도진 수군이 소속되어 있었던 전라좌수군은 1592년 5월 4일 여수의 전라좌수영 본영 앞바다에서 경상도 赴援을 위해 최초로 출전하였다. 이때 동원되었던 군선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이었다. 당시 전라좌수영 관하 수군진과 고을에서 출동시켰던 판옥선의 척수를 보면, 전라좌수영 본영 4척, 방답진 2척, 사도진 3척, 여도진 1척, 발포진 2척, 녹도진 2척, 순천부 3척, 광양현 1척, 보성군 2척, 낙안군 2척, 흥양현 3척 등 모두 24척이었다.⁴⁹⁾ 여기서 흥양현 지역 수군진과 읍수군의 판옥선 척수는 모두 11척으로⁵⁰⁾ 전체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판옥선의 승선 인원이 대략 125여 명 정도였으니 이를 판옥선 척수에 대입해 보면 당시 흥양현 지역 수군진과 읍수군의 수군 병력은 약 1,400여 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⁵¹⁾ 이것을 다시 당시 흥양현 지역에 존재했었던 수군진 4곳, 읍수군 1곳에 분배해보면 각 수군진과 읍수군의 수군은 약 280여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인리 50여 명을 포함하면 임진왜란 당시 녹도진에 배속되었던 인원은 대략 330여 명 정도 된다. 그러므로 『경국대전』 편찬 이후에도 녹도진의 수군·인리 인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 같으며 이 상태는 임진왜란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경국대전』이 최종 편찬되었던 성종대 녹도진은 인리를 제외한 선군만 290여 명이었다는 사실은 참고된다.⁵²⁾

49)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2, 「玉浦破倭兵狀」.

50)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見乃梁破倭兵狀」: 「釜山破倭兵狀」.

51) 임진왜란 시 판옥선의 승선 인원은 125명 정도였다고 한다(『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24일[무오]).

52) 『성종실록』 권290, 성종 25년 5월 11일(무술).

〈표1〉 시대별 녹도진 배속 인원

전거	인원 현황
『세종실록』 지리지	선군(수군) 483명, 사공 4명
『신증홍양지』 ⁵³⁾	군관 25명, 기패관 3명, 방선장 1명, 훈도 2명, 진무 30명, 주사(수군) 330명 -. 합계: 330명
『여지도서』 ⁵⁴⁾	수군만호 1명, 군관 25명, 기패관 3명, 방선장 1명, 훈도 2명, 리 30명, 지인 10명, 사령 10명 -. 합계: 82명
『홍양지』 ⁵⁵⁾	수군만호 1명, 소속군관 25명, 기패관 3명, 방선장 1명, 포도관 2명, 진무 30명, 주사(수군) 230명 -. 합계: 292명
『호남읍지』 ⁵⁶⁾	수군만호 1명, 군관 20명, 진무 20명, 통인 10명, 사령 20명, 전선군졸 171명(기패관 2명, 훈도 1명, 화포장 10명, 사부 10명, 포수 24명, 타공 9명, 능노 108명), 방선(병선)군졸 54명(선장 1명, 훈도 1명, 기패관 1명, 사부 10명, 포수 10명, 화포장 1명, 능노 30명, 사후선 12명(각 사공 1명, 능노 5명) 입방군 1년 810명 -. 합계: 수군·인리 314명, 입방군 810명
『호남진지』 ⁵⁷⁾	입방군 810명

임진왜란 당시 33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배속되었던 녹도진은 조선 후기에도 그 정도 상태를 유지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 후기 녹도진에는 입방군 800여 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입방군은 전라좌수사 또는 녹도진 만호의 지휘 아래 정기적인 훈련과 소집 점검을 하거나 유사시에 해전에 동원된 인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규정일 뿐 실제로는 負役價로 동원을 면제받은 경우가 허다했

53) 『신증홍양지』(규 10804, 1758년 撰).

54) 『여지도서』 전라도 홍양현 진보.

55) 『홍양지』(상백 古 915. 14 H483, 1759~1765년).

56) 『호남읍지』(규 12175, 1871년 찬) 「녹도진진지」.

57) 『호남진지』(규 12188, 1895년 찬)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었다. 이 부역가를 일선 수군진에서는 驍卒의 급대 또는 雇立 이외 수군진에서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었던 경우도 있었다.⁵⁸⁾

조선 후기 녹도진은 조선 전기에 비해 일부 수군·인리가 감원되어 대략 350여 명 정도가 상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녹도진에 배정된 인원이며, 실제 상근한 인원은 이것보다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전라좌수영 관할 일부 수군진에서 격군 등이 부족하여 전선 일부를 해안가에 매어두기만 했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⁵⁹⁾ 이러한 현상은 문서상으로만 등록된 수군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근무하는 수군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훈련을 할 때 수군이 없어 일반 백성들을 동원했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⁶⁰⁾

조선 초기 녹도진 만호는 중선 6척 별선 2척을 지휘하였다. 이 군선 수는 당시 전라좌도 관할 여타 수군진들과 거의 유사하다.⁶¹⁾ 그런데 1429년(세종 11)경 그것에 대해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전라도 수군 처치사가 주둔하던 대굴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둔지로 마땅치 않다는 판단을 내려 그곳 병선을 다른 지역 즉 난량으로 옮기게 되면서 녹도진은 회령포진의 병선을 이속받고 녹도진의 병선은 축두진으로 옮겨진 것이 그것이다.⁶²⁾ 이때 녹도진 만호는 회령포진의 중선 4척, 별선 4척을 이속받아 지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경국대전』이 편찬될 즈음에 녹도만호는 대맹선 1척, 중맹선 2척, 소맹선 3척, 무군맹선 3척을 총괄하였다. 명종대 신형 군선인 판옥선(전선)이 개발되면서⁶³⁾부터

58) 전라좌수영 관하 방답진은 수군량대가 1,620명, 고립·추졸 등의 급대가 3,240명 정도 배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호남진지』(규 12188) 「방답진진지급사례병록성책」).

59)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정월 17일(신사).

60) 『비변사등록』 31책, 숙종 1년 2월 4일.

61) 이 당시 전라좌도 관할 만호가 주둔하던 수군진의 군선 수를 보면 내례진 중선 6척, 별선 6척·돌산진 중선 8척·축두진 중선 6척, 별선 2척·회령포진 중선 4척, 별선 4척을 보유하고있던 것으로 나타난다(『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62)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12일(정해).

63) 기존에 군선이었던 맹선은 조운선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종대 또는 명종대에 이르러서는 군선으로서 생명을 다하고 을묘왜변(1555년) 즈음에 판옥선이 새롭게 개

녹도만호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을 지휘하였다. 이 군선들은 辰字 전선, 來字 병선, 署字 사후선, 寒字 사후선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⁶⁴⁾ 그런데 이것들은 19세기경이 되면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⁶⁵⁾ 이러한 상태는 비단 녹도진만의 상황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수군진이 그러하였다. 1850년(철종 1년)과 1851년 전라좌수영 보고 기록에 따르면 관하 각 수군진 군선 대부분이 1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개삭 규정을 위반한 채 그 기한을 넘긴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데에서⁶⁶⁾ 그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다.

〈표2〉 시대별 녹도진 소속 군선

분류	『세종실록』 (지리지)	『경국대전』	『신증홍양지』	『만기요람』	『호남읍지』	『호남진지』
중선	6					
별선	2					
대맹선		1척				
중맹선		2척				
소맹선		3척				
무군소맹선		3척				
전선			1척	1척		
진자 전선					1척	1척
병선			1척	1척		
래자 병선					1척	1척
사후선			2척	2척		
서자사후선					1척	1척
한자사후선					1척	1척

발되면서 임진왜란 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으로 활동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명칭이 전선으로 변경되었다(김제근, 『한국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125쪽).

64) 『호남읍지』(규 12175, 1871년 찬) 「녹도진진지」.

65)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66) 『전라좌수영계록』 1책 「호좌수영보첩록」, 경술(1850) 7월 9일(16~17쪽) ; 『전라좌수영계록』 1책 「全羅左水使在任時移報錄」, 함풍 1년(1851) 8월 16일(14~15쪽).

녹도진에는 1485년(성종 16)경에 성이 축조되었다. 조선 초기 수군들은 선상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각 수군진에는 특별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수군들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에서는 각 수군진의 축성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세종대에 이어 세조대에는 연안과 수군진에 대한 축성 관련 내용을 제기하였고 일부에서는 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던 중 전국 각 수군진에 축성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성종대부터였다.⁶⁷⁾ 그리하여 1484년(성종 15) 말경에는 첨사와 만호 주둔지에 대한 축성 여부를 두고 재논의가 진행되었고, 다음 해 3월에는 조정의 관리들에게 경상도와 전라도 연해안 수군진을 직접 방문하여 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이때부터 축성과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녹도진성도 이때 축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축성된 녹도진성은 위치가 남향으로, 둘레 2천 20척, 동서 길이 8백 10척, 남북의 너비 4백 4척이었으며 성안에는 샘이 2곳이 있었다고 한다.⁶⁸⁾ 이 성의 규모는 이후 공식적으로 약간의 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3〉 녹도진성의 시대별 규모

전거	둘레	높이	비고
『성종실록』 권176, 성종 16년 3월 25일(병오).	2,020척	13척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흥양현 관방.	30리		
『동국여지』 흥양현 관방.	30리		
『신증흥양지』(규 10804) 선소.	790보	13척	치성 49
『여지도서』 흥양현 진보.	1,400척	13척	
『만기요람』 군정편 관방4 전라도.	1,400척		
『대동지지』 흥양현 진보.	1,400척		
『조선지리지』 흥양현 관방.	1,400척	13척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레개록성책」.	719파	2파 반	

67) 『성종실록』 권171, 성종 15년 10월 29일(계미).

68) 『성종실록』 권176, 성종 16년 3월 25일(병오).

『호남읍지』(규 12175, 1871년 찬) 「녹도진진지」.	719과	2과 반	
『증보문헌비고』 권27. 여지고15.	1,400척	13척	치첩 44

녹도진은 현재 도시화 진행으로 예전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조선 후기 때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경 이 수군진의 사부청과 선창고가 비바람에 손상을 입어 없어진 상태라고 하였던 것이나⁶⁹⁾ 인근 사도진에서 동쪽, 서쪽, 남쪽 등의 성문이 시설된 지 오래되어 파손되거나 혹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에서⁷⁰⁾ 그 같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여하튼 현재 녹도진의 옛터에는 일부 진성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북벽의 일부 잔존 석렬이 그것이다. 이것을 보면 녹도진성은 외축, 내탁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외벽의 형식은 기단석 1열 위에 부정형의 대형 석재를 쌓았고, 상부 쪽으로 갈수록 작은 석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에 따르면 녹도진에는 많은 공공건물과 구축물이 있었다. 예컨대 동헌을 비롯하여 내아사, 책실, 군관청, 진치청, 공수문, 노령청, 사부청, 선창고 등의 건물과 선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사부청이나 선창고는 비바람에 손상을 입어 퇴락한 상태였다.⁷¹⁾ 이것은 당시 공공건물의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소에는 군선 등을 계류 또는 수리하는 굴강과 선소와 관련된 건물 2채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변정 또는 선창이었다.⁷²⁾ 이 선소는 일반 군관이나 아니면 監造戰船出納軍官⁷³⁾이 현장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곳에는 군관을 비롯하여 전선 군졸과 병선 군졸 그리고 여타 수군진 소속 수군·인리 등 상당한 인원이 출입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9)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70) 『호남읍지』(규 12188, 1895년 찬) 「사도진진지급사례성책」.

71)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72) 「홍양현녹도진지도」(규 10454).

73) 나대용은 임진왜란 직·전후 이순신 휘하에서 군선 등을 건조하는 감독하는 ‘監造戰船出納軍官’ 직책을 맡았다(『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24일[무오]).

〈표4〉 녹도진의 시대별 공공건물 현황

시설물	『호남읍지』(1871)	『지방지도』(1872)	『호남진지』(1875)
동문		○	1칸
서문		○	
남문	3칸	○	3칸
북문		○	1칸
객사	12칸	○	
고창			7칸
공수문			3칸
공해청	3칸		
관사		○	
군관청	9칸	○	4칸
군기고	5칸	○	
내이사	5칸	○	3칸
노령청			4칸
동헌	5칸		4칸
사령청	7칸	○	
사부청	4칸	○	3칸
선창	3칸	○	3칸
어변정	3칸	○	
이청		○	
전우			9칸
진리청			4칸
진무청	9칸		
창고	12칸	○	
책방	4칸		
책실			3칸
화약고	1칸	○	

녹도진의 재정 운영을 보면 이곳에는 水軍糧代錢으로 810량이 배정되었는데, 그중 137량 이상을 순영문에서 水軍糧錢割例·稅船護送例·藥丸價 등의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670량가량도 순영문에서 여러 읍에 획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운임 등으로 거두어 갔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녹도진에는 의정부 관하에 鎭流亡逋還米 294석, 조 452석, 태 224석, 피모 20석 그리고 순영문 관하에 鎭流亡逋還米 212석, 조 1,200석, 태 255석, 피모 167석 및 통영문 관하의 鎭流亡逋還移轉米 349석, 조 16

석 등을 상납하였다. 녹도진에서는 이 외에도 통영문에 수납하는 鎭流亡 逋還夏·秋還作錢 379량과 통영문에 바치는 移轉米代錢 102량 및 기타 잡비를 비롯하여 의정부 등 중앙의 여러 관아 211량, 전라좌수영문 51량, 홍양현 기타 21량, 목장 기타 130량 등을 부담해야 했었다.⁷⁴⁾ 이러한 비용은 녹도진 관하 백성들에게 모두 전가되었다고 생각되거나와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같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원들의 고초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시 녹도진의 아전과 노복들이 고초를 이기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려 여러 관사가 텅 빈 가운데 지휘관인 만호는 먹고살 방도마져 막연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 것이⁷⁵⁾ 그것을 증명한다. 녹도진의 어려웠던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다음에서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녹도진에는 관내 9개 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의정부와 순영문 관하의 환곡이 있었다. 그런데 신묘년⁷⁶⁾ 9월에 왕비의 궁토를 담당하던 명례궁의 牌筋에 따라 그것을 목장으로 이속시키게 하였다. 이후 조정의 조치에 따라서 그것을 녹도진에서 다시 돌려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목장 측에서 환속시키지 않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松政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있었다. 녹도진이 설치된 이래로 이 수군진에서는 주위가 30리인 절이도와 도양면에 소재하는 주위 20리인 의송산 두 지역의 소나무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자년(1888[고종 25])⁷⁷⁾ 정월에 명례궁의 패칙을 소지하고 내려온 궁 감찰이 절이도 것을 탈취해 가버렸다. 이후 조정의 조치에 따라 녹도진에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이도를 홍양현 소관으로 이속시키고 그곳 의송산은 목장 소속으로 이관시켜 버렸다고

74)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75)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76)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이 작성된 해는 1895년(고종 32)이었다. 그러므로 신묘년은 이로부터 가장 가까운 1891년(고종 28)으로 생각한다.

77)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이 작성된 해는 1895년(고종 32)이었다. 그러므로 무자년은 이로부터 가장 가까운 1888(고종 25)이 아닌가 한다.

한다. 나아가 녹도진 경내 선군이 거주하였던 9개 리 가운데 4개 리를 목장에서 빼앗아 가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목장 측에서는 그 지역에 役을 부과하여 이득을 챙겼다. 원래 조선의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군진이 관할하는 선군의 거주지역에 읍이나 목장 등에서 役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목장의 衙吏들이 방조제 축조를 빌미로 사사로 이 이익을 챙기고자 명례궁에 거짓으로 호소하여 강제로 빼앗은 녹도진 관내 4개 리의 수군역을 혁파한 다음, 이 지역을 목장에 소속시켜 목장과 관련된 각종 役을 부담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조선 조정에서 그것을 녹도진으로 환속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목장 측에서는 명례궁의 배경을 앞세워 그것을 돌려주지 않은 대담함까지 보였다.⁷⁸⁾ 그렇지 않아도 녹도진은 기존에 갖가지 명목으로 상부 기관에 상납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목장 측에서 배경을 앞세워 위와 같은 횡포를 일삼았으니 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불문가지라 할 수 있다.

녹도진의 이 같은 상황은 공공건물 또는 군선 등이 파손되었는데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며, 이것은 수군진의 일차적 목적인 해양 방어 기능까지 상실하게 만들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녹도수군진의 활약

이번 장에서는 녹도진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녹도진이 참여했었던 해전과 관련된 내용을 주목하여 다루어 보기로 하겠는데, 이는 평상시 왜구 침입으로 인한 국지적 해전과 임진왜란 시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록상으로 녹도진이 처음 해전에 참여하였던 것은 이 수군진이 설치

78) 『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1406년(태종 6) 4월 중순, 경상우도 일원에 있는 갈이도에 왜적 다수가 침입하였는데 이때 녹도 천호 김인상과 녹도 수군이 참전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이때 김인상과 녹도 수군은 경상도 병마사(수군첨절제사) 김을우의 군사와 함께 경상우도 갈이도에서 왜선 1척을 포획하고 왜적 30여 명을 수장시켰으며 왜적 9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⁷⁹⁾

조선시대 수군의 해양 방어 범위는 각 수군진 관할 지역에 한정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사시 상급 수군영·진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관하 지역 외에서 해전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주진의 해양 방어 범위였던 도 단위 행정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되는 것은 임진왜란 초기 원군이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에게 구원 요청을 했었을 때 이순신은 각기 분담하는 구역이 별도로 있으므로 조정의 명령이 없고서야 불가한 일이라 하여 경상도 赴援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이다.⁸⁰⁾

그런데 여기서 전라도 관하 수군이었던 녹도 수군이 경상우도 지역에서 왜적을 퇴치했다는 것은 주목된다. 녹도진이 전라좌도에서도 최 서쪽에 위치에 있어서 경상우도와와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하튼 녹도진의 여건이 그러함에도 그 해전에 참여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즉 당시 경상도 수군사령부에서 전라도 수군사령부에 구원 요청을 하였는데, 지원 수군진으로 녹도진 발탁되었거나 아니면 녹도 수군이 해양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다. 전자의 경우라면 녹도진이 평소 왜구 퇴치 능력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전력이 여타 수군진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79)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17일(정축).

80) “使英男往舜臣請援 舜臣辭以合有分界 非朝廷之命 豈宜擅自越境 均又使英男往請 凡往返五六不已 每英男回 均坐船頭 望見痛哭(『정비록』 권1).” 이 같은 사정으로 이순신은 처음에는 원군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후 곧 경상도 해역으로 赴援하여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하였다.

녹도진의 두 번째 해전은 1489년(성종 20)에 있었다. 즉 이해 11월 7일 왜선 6척이 흥양현 축두리 일원에 침입하여 주민들의 양식과 의복을 약탈해 간 이후 다음날 녹도진을 침입하여 만호 최맹원이 이끈 녹도진 수군과 치열하게 접전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이 해전에서 녹도 수군의 반격을 받은 왜적들이 도주함으로써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녹도 수군의 船軍 김석이가 피살되고 강사동 등 3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⁸¹⁾ 피해는 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만호 최맹원이 조정에 아군 피해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심문받았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⁸²⁾ 여하튼 이 해전이 끝난 직후 조정에서는 그 과정의 공과, 평가에 대해서 여러 논박이 있었다. 그중 왜적의 선박이 가볍고 빨라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들어 각 수군진에 기능이 그것과 유사한 ‘豆豸也只船’을 건조하여 배치하자는 논의가 있어 주목되는데, 그 군선 명칭의 한자 뜻과 기능이 가볍고 빠르다는 것을 토대로 하면 조선 후기 해골선의 전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⁸³⁾

세 번째 해전은 1479년(연산군 3)에 일어났는데 이를 일명 녹도왜변이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같은 해 2월 25일 삼포 왜인으로 추정되는 왜적이 왜선 4척을 이끌고 녹도진을 급습하여 그곳 지휘관이었던 만호 김세준을 비롯하여 군관 2명 진무 5명, 군사 20여 명을 살해했었던 사건이다.⁸⁴⁾ 이 사건으로 인해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은 물론이고 조야에까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내용을 접한 조정에서는 부친의 喪中이었던 이량장군을 전라좌수사로 임명하여 긴급히 파견하였고,⁸⁵⁾ 이어 조정의

81)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록에 나타난 녹도진의 피해 상황은 수군 2명 피살, 2명 부상으로 되어 있어(『성종실록』 권236, 성종 21년 1월 5일[무오]), 비교되는데 이것은 약간 후대의 기록이라 신빙하기가 주저된다.

82) 『성종실록』 권234, 성종 20년 11월 17일(신미).

83) “命統營及諸道水營造‘海鵝船’時, 全羅左水使田雲祥造‘海鵝船’體小而輕疾 無畏風之慮 在魯請令統營及諸水營依其制造之 從之(『영조실록』 권52, 영조 16년 윤6월 18일 [정사]).”

84)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 3월 1일(계묘).

85)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 3월 2일(갑진).

관리였던 이계동을 전라도 순변사로 파견하여 그 왜변을 수습하게 하였다.⁸⁶⁾ 이때 이량장군은 병사 원중거 및 전라우수사 이영산 등과 더불어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에 잔존해 있었던 왜적들을 수색하여 토벌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⁸⁷⁾ 이 해전으로 인해 녹도진은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수군과 군비 확충에 만전을 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왜구 침입으로 인한 해전에서 왜구를 쉽게 퇴치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1525년(중종 20)에 홍양현 관하 손죽도와 평두도 일원에서 벌어진 해전이다. 이해 9월 16일 왜선 4척이 손죽도와 평두도 해역 일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전라좌수사 방호의는 관하 각 수군진에 손죽도와 평두도 일대로 출전할 것을 명한 후 자신은 병선 20여 척과 함께 손죽도에서 해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전라좌수사는 왜선 4척이 평두도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듣고 관하 수군진과 협공하여 왜적 22명을 비롯한 황도와 장궁 등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이 해전이 일어난 손죽도와 평두도는 『녹도진진지금사례개록성책』과 이후 일어난 손죽도사건 등의 사례를 토대로 하면 녹도진 관하 지역으로 판단된다.⁸⁸⁾ 따라서 당시 왜선의 침입 사실을 전라좌수사에게 보고한 것은 녹도 수군일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이 전투에서 왜적 퇴치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도 녹도 수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전 상황을 보면 해역 경계에서부터 상황 보고, 왜적의 퇴치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평상시 전라좌수영 관하 수군진이 어떠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시 전라좌수군 특히 현 고흥 지역 수군(녹도·발포·사도·여도진)의 활약이 도드라

86)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 3월 12일(갑인).

87)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 3월 28일(경오) 및 11월 1일(무술) ;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장군도성 축조과정 및 배경과 이량장군」, 『역사학연구』 54, 호남사학회, 2014, 45쪽.

88) 당시 녹도진의 순찰 구역 즉 관할 구역은 시산도 손죽도 초도 일원까지였다(『호남진지(규 12188)』 「녹도진진지금사례개록성책」). 이것은 거문도 바로 앞에서부터 손죽도와 절이도(현재 거문도: 금산면)를 거쳐 녹도(현 도양읍 봉암리: 녹동)까지 이어지는데, 이 선상 일대가 녹도진의 관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졌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⁸⁹⁾

다섯째는 1555년(명종 10) 6월 초 즈음 왜적이 달랑포와 영암 등지에서 패하여 후퇴하던 중 왜선 28여 척이 녹도진을 포위하면서 벌어진 해전이다. 이때 흥양현감 신지상 및 권관 김현이 함께 녹도진성을 지키면서 병사 조안국과 좌도방어사 남치근 등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조안국 등은 인근 흥양치소 일원에 있으면서 즉각 구원에 응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에야 군사를 거느리고 녹도진에 당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왜적들은 그 포위를 풀고 도주하여 녹도진 인근 금당도에 정착하였는데 6월 3일 남치근이 병사·수사와 전함 60여 척을 이끌고 왜적을 추격하여 왜선 1척을 노획하고 다수의 왜적을 사살하였다.⁹⁰⁾ 이로 인해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조안국과 남치근이 출동을 미루는 바람에 섬멸할 수 있었던 그들을 놓치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조안국과 남치근이 문책을 당했는데,⁹¹⁾ 이것은 유사시 지휘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섯째, 1587년(선조 20) 현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일원에서 일어난 해전이다. 이 해전은 일명 손죽도사건, 또는 정해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정해왜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현 고흥 지역을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은 주기적으로 왜구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많았다. 특히 1497년(연산군 3) 현 고흥군 도양읍 일대에서 일어났었던 녹도왜변,⁹²⁾ 1544년(중종 39) 현 통영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사랑왜변,⁹³⁾ 1555년(명종 10)에는 해남지역 일원에서 일어났던 을묘왜변과⁹⁴⁾

89)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2,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見乃梁破倭兵狀」: 「釜山破倭兵狀」; 조원래, 「임란초기 해전의 승첩과 흥양수군의 활동」, 『전남사학』 19, 호남사학회, 2002 참조.

90)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6월 9일(임신): 명종 10년 6월 10일(계유): 명종 10년 6월 12일(을해); 권19, 명종 10년 7월 11일(계묘).

91)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6월 10일(계유): 권19 명종 10년 7월 11일(계묘).

92)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 3월 1일(계묘) 및 3월 2일(갑진).

93) 『중종실록』 권102, 중종 39년 4월 18일(병술).

94)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5월 16일(기유).

같은 사건은 왜구가 대규모로 침입하여 이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다. 그런데도 조선 조정에서는 왜구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곧장 달아나는 것을 보고 항상 있는 행위나 전면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행위로 보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1587년(선조 20) 1월 말경 갑자기 일본 규슈의 五島와 平戶島 출신의 왜구들이 녹도진 관할 지역에 상당한 규모로 침범을 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 녹도진의 지휘관은 만호 이대원이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왜구가 쳐들어오자 경황이 없어 상관이었던 전라좌수사 심암에게 보고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수군들을 이끌고 출동하여 그들을 피멸시켜버렸다.⁹⁵⁾ 이때 이대원의 군사들은 사망하거나 실종된 군사가 하나도 없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이대원은 돌아와서 전라좌수사 심암에게 전과를 보고하였다. 그러자 전라좌수사 심암은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전공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오해하여 이대원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2월 1일에 왜선 18척이 다시 손죽도를 침범하여 점령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때 전라좌수사 심암은 이대원에게 먼저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당시 침범한 왜구들은 함대에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나타나 이전의 왜구들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다. 이러한 점을 파악한 이대원은 전라좌수사 심암에게 군사를 더 많이 모으고 함대를 크게 만들어 출동하자고 진언하였다. 그러나 심암은 도리어 협박까지 하면서 즉각 출전을 명령하였고 자신은 후방을 맡으면서 이대원을 최전선에서 싸우게 하였다. 그런데 왜구들은 많고 아군은 적은데다, 왜구의 전선은 크고 견고했으며 한편으로 조총으로 무장하여 그 전력은 막강한 상태였다. 이대원은 이러한 왜구를 맞아 최선을 다해 싸우면서 전라좌수사 심암의 지원을 기다렸다. 하지만 후방을 맡고 있던 전라좌수사 심암은 그것을 관망만 한 채 지원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다.⁹⁶⁾ 이로 인해 이대원과 그의 군사들은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전시 상

95) 『선조수정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1일(경신).

96)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10일(기해) ; 『선조수정실록』 권21, 선조 20년

황이 이렇게 되자 이대원은 패전할 것을 예상하고 칼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절명 시를 써서 집안 하인에게 주며 자신의 장례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이대원은 왜구에게 붙잡혀 갓은 고문을 당하였고 마침내 손족도 물으로 끌려 나와 수하 병사들과 함께 참수당하였다.⁹⁷⁾

이대원과 그 휘하 장졸들을 전사시키고 전라좌수군을 물리친 왜구들은 손족도에 이어 인근의 섬들을 약탈한 후 그곳에서 납치한 백성들을 왜선에 태우고 연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현재 완도에 위치에 있었던 가리포진까지 공격하였다. 왜구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가리포진은 주둔지를 점령당하여 군선 4척을 빼앗겼고 지휘관이었던 이필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하였다. 이때 전라우수영 지휘관이었던 원호가 출동하여 지원했으나 끝내는 가리포진이 함락되고 말았다.⁹⁸⁾

이러한 사정을 전달받은 조선 조정은 한성 우윤 신립, 우참찬 김명원 등을 왜구들이 침입해 온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으로 보내어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변협을 좌방어사로 삼아 남쪽 지방으로 출정하게 하였으며, 김명원을 전라도 순찰사로 삼아 손족도를 침범한 적을 치게 하였다. 당시 전라감사였던 한준은 도내의 고을에 명령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적을 막게 하였으나 5~6일이 지나도록 왜구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곧 군사들을 철수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왜구들이 물러난 상태였다.⁹⁹⁾

손족도사건으로 인해 전라좌수영 관할 지역은 수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 사건의 피해가 그같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전라좌수사 심암이 지원하지 않은 채 이대원과 그 군사들만이 최전선에서 싸우게 하고 관망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암이 조정에 왜적의 전력 상태를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대응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한 것도

2월 1일(경신): 이은상, 『고흥 雙忠祠 史蹟』, 쌍충사 중수 추진위원회, 1980, 62~64쪽.

97) 이은상, 같은 책, 66~67쪽.

98)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27일(병술): 2월 26일(을유): 2월 28일(정해): 『선조정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1일(경신)

99)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26일(을유)

패인의 또 하나 원인이었다.¹⁰⁰⁾

손죽도사건이 끝난 후 선조는 패전과 균율을 어긴 책임을 물어 심암을 조사할 것도 없이 참수하여 군사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전라우수사 원호 또한 왜구를 물리치지 못한 죄로 국문을 받았다. 전라감사 한준은 이대원이 패하여 전사할 당시 순천에 도착하여 적의 형세가 왕성하다는 말을 듣고 달아났다는 죄를 들어 파직하였다.¹⁰¹⁾ 이외 여러 장수가 힘써 싸우지 않았거나 늦게 출동했고 달아나 숨었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다.

손죽도사건이 있었던 후 조정에서는 물러난 왜구가 다시 나타나 언제 전면전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판단하여 병조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병조에서는 왜구의 침략이 예상되는 전라도 해안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고 무신과 양민 및 노비 등을 가리지 않고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여러 가지 무기 등을 갖추어 놓겠다고 보고하였다.¹⁰²⁾ 손죽도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준전시 상황에 접어들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편 조정은 손죽도사건으로 순국한 이대원에게는 정려와 함께 병조참판을 추증하였다.¹⁰³⁾ 그 외 희생자들에게도 포상해 주었으며 제사까지 지내주었다.¹⁰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손죽도사건의 논공행상을 마무리한 조정은 왜구 침입 방어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조정에서는 왜구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주고 곧장 달아나는 것을 보고 늘 있는 행위나 전면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행위로 보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손죽도사건 때 이전과는 달리 대규모의 왜구가 침입하고 그 피해도 엄청나게 입게 되자 조정에서는 왜구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¹⁰⁵⁾ 이에 따라 조정은 호남 연해 지역 방어에 주력하게

100)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3일(임진).

101)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28일(정사): 3월 10일: 6월 4일(임술).

102)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2일(신묘).

103) 『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7월 14일(신해); 『현종개수실록』 권19, 현종 9년 7월 14일(신해).

104)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7일(병신).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임진왜란 당시 녹도진을 비롯한 전라좌수군이 조선 수군의 주력군으로 전란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임진왜란 이전 녹도진의 海戰 활동과 戰果

전거	장소	침입 규모	결과	비고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17일(정축)	경상우도 같이도	왜적 다수	왜적 30인 수장, 9명 사살	- 병마사 김을우 군사와 녹도천호 김인상의 녹도 수군 참전
『성종실록』 권234, 성종 20년 11월 17일(신미): 권 237 성종 21년 2월 22일(갑진)	흥양현 추두리, 녹도진	왜선 6척	- 녹도진 선군 김석 등 4인 피살, 강사동 등 3인 행불	- 녹도만호 최맹원과 녹도 수군 왜적과 접전
『성종실록』 권236, 성종 21년 1월 5일(무오)			- 녹도 수군 2명 피살, 2명 부상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 3월 1일(계묘).		왜선 4척	- 왜적에게 만호 김세준과 군관 2인, 진무 5인, 군사 20명이 살해당함	- 녹도진 침입 후 접전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 9월 22일(무인).		왜선 4척	- 왜적 22명 사살, 환도, 장궁 등 노획	- 흥양현 손죽도, 평두도 등지에 침입. 좌수영 관할 수군들이 출동하여 왜적 격퇴

105)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2일.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6월 10일(계유).		왜선 28척 왜적 다수	- 왜적 다수 사살 왜선 1척 노획	- 왜적 녹도진 등 침입 후 포위. 다음 날 병사 조안국 및 좌도 방어사 남치근 등 지원군 도착하자 도주 후 녹도 관할 섬 금당도 정박. 남치근 병사·수사와 전함 60여 척으로 추격. 왜적 저항하다 도주. - 조안국·남치근 문책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26일(을유); 『선조수정실록』 21권, 선조 20년 2월 1일(경신).		왜선 18척	- 녹도만호 이대원 전사	- 홍양현 손죽도에 침입. 녹도진을 비롯한 전라좌수영 관할 수군들이 출동하여 왜적과 접전

지금껏 임진왜란 직전까지 녹도진의 해전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기록 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해전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이러한 해전을 겪은 녹도진은 평소에 군비 확충 및 정비와 수군의 훈련 등을 강화하여 전비에 만전을 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많은 실전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전력화 또는 정예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이 전라좌수영 관하 수군진 점검 시 녹도진의 전비 상태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녹도만호 정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은 참고된다.¹⁰⁶⁾ 여하튼 녹도진의 그 같은 해전 경험과 완벽한 전비 결과 임진왜란 당시 해전에서, 많은 활약과 전과를 올렸다. 이제 임진왜란 시 녹도진이 어떠한 활약을 하였는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인 4월 15일, 경상우수사 원균으로부터 이순신에게 구원 요청이 왔었다. 이때 이순신은 각, 수영마다 방어할 구역이

106) 『난중일기』 1592년 2월 22일.

별도로 있으므로 조정의 허락 없이는 구원이 불가하다고 거절하였다.¹⁰⁷⁾ 그러나 이순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순신의 장계에 잘 나타나 있듯이 박홍의 경상좌수군이 패주해버리고 원균의 경상우수군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영남의 해로 사정에 어두운 전라좌수군으로서는 쉽게 그곳으로 赴援하기가 어려웠다.¹⁰⁸⁾ 한편 함께할 지원군이 없이 전라좌수군이 홀로 출전한다는 것도 전라좌수군의 책임자로서 신중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순신 휘하 일부 장수들이 우리 지역을 지키기도 힘겨운 일인데 타도를 부원하기가 역부족이라는 의견까지 개진하였다.¹⁰⁹⁾

이순신은 이 같은 이유로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도 해역으로 부원하려는 뜻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녹도진의 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 등이 “적을 토벌하는 데는 우리 도와 남의 도가 따로 없다. 적의 예봉을 먼저 꺾어놓으면 본도 또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며,¹¹⁰⁾ 나아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뒷날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이순신에게 적극적으로 부원을 주장하였다.¹¹¹⁾ 이러한 상황에서 이후 3일이 지나서도 이순신의 출전 명령이 없었다. 이때 조속한 출전 여부를 놓고 최후로 이순신과 면담을 요청한 장수가 녹도만호 정운이었다. 정운은 이순신에게 곧 출전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녹도진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하로서 평소에 국은을 입고 국록을 먹다가 이런 때에 죽지 않고 어떻게 감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오.”라고 했다.¹¹²⁾ 이는 당시 정운과 녹도 수군의 결전 의지와 사기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수군이 그동안 많은 실전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정운의 그 같은 의지를 본 이순신은 최종적으로 출전을 결행하기로 하였다.

107) 『장비록』 권1.

108) 『이충무공전서』 권2, 「赴援慶尙道狀」.

109) 『연려실기술』 권15, 선조조고사본말 「李舜臣扼邊海路」.

110)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111) 『난중일기』 1598년 5월 초3일.

112)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1 행록1.

이에 따라 5월 4일 전라좌수군은 옥포해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제 앞 바다를 향하여 출전하였다. 당시 전라좌수군의 편제는 방담첨사 이순신을 중위장으로 하여 전·후·좌·우부장과 좌·우척후장 등 13개 부서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갖춘 다음 판옥선 24척과 소형 협선 15척에 민간 어선이었던 포작선 46척까지 동원하여 첫 해전에 임하였다. 이때 녹도만호 정운은 후부장의 임무를 맡아 수군을 지휘하였다. 이들은 여수에 있었던 전라좌수영 본영을 출발한 지 이틀 후 한산도에서 경상우수군의 판옥선 4척과 협선 2척 등과 합류한 뒤, 7일 아침 옥포 앞바다에서 최초의 해전을 치렀다. 이날 30여 척의 일본 군선을 공격하여 1차 옥포에서 26척을 분멸하고, 2차 함포해전에서 5척을 불태웠다. 다음 날 8일에는 적진포에서 적선 11척을 불살라 격멸하였다. 결과적으로 3차례 해전에서 아군은 적선 40여 척을 대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해전에서 정운 휘하 녹도 수군이 거둔 전과도 컸다. 정운이 승선한 전선에서 적의 대중선 3척을 격파한 것과 부통장 주몽룡이 불태워 없앤 것, 중선 1척을 합하여 모두 4척을 분멸하였고, 다량의 각종 군수물을 노획하였던 것이 그것이다.¹¹³⁾ 이 같은 전과를 올린 녹도 수군은 이순신 휘하 전군의 개선과 함께 5월 9일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돌아온 뒤 곧 주둔지인 녹도진으로 귀환하여 전비 정비를 하였다. 녹도만호 정운의 결전 의지에서 비롯된 전라좌수군의 제1차 해전 승리는 임진왜란 초기의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제2차, 제3차 대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비를 마친 전라좌수군은 5월 29일 2차 출전하였다. 이때 녹도만호 정운은 좌척후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녹도 수군은 전군 선봉에서 서서 적선을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순신의 여러 장계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사천해전에서 여타 수군진과 합동으로 적 대선 12척을 분멸하였고, 6월 7일 울포해전에서 정운의 녹도 수군은 적의 대형 전선 1척을 바다 가운데서 포획하고 적병 9명을 참수하였으며, 아울러 일본군의 포로가 된 경상우수군 1명을 구출하는

113) 『이충무공전서』 권2, 「玉浦破倭兵狀」.

전과를 올렸던 것이 그것이다. 특히 앞서 벌어진 당항포해전에서는 맨 앞 선봉에 서서 적 대선 2척을 분멸하였으며, 동래 출신 조선인 포로를 빼앗아 포로가 4월부터 직접 보고 들은 일본군의 동태와 전세를 파악하여 이순신이 작전 수립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¹¹⁴⁾

그런데 정운의 녹도 수군이 전공이 가장 뚜렷했던 해전은 한산도해전과 부산포해전이었다. 이순신 장계에 따르면 한산도 해전 시 정운의 녹도 수군 전과는 적의 증각대선 2척을 총통으로 꿰뚫어 부수고 적병 3명을 참수하였으며 아국인 2명을 사로잡았다는 내용밖에 없다.¹¹⁵⁾ 그러나 다른 기록을 보면 당시 정운의 녹도 수군은 이순신과 함께 적과 급전을 벌였으며, 그날 해전에서 포획한 적선이 무려 70여 척이었는데 녹도만호 정운의 공로가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어¹¹⁶⁾ 한산도대첩에서 녹도 수군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부산포해전의 경우 전라좌수군이 주도한 조선 수군은 1백여 척의 적선을 깨뜨렸을 정도의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특히 정운과 녹도 수군의 활약은 대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 4차에 출전하여 10회에 달하는 접전에서 모두 다 승첩하였지만, 장수들의 공로로 논한다면 이번 부산 싸움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 그런데 녹도만호 정운은 임진왜란 이후 오직 충의를 격발, 적과 싸워서 함께 죽기를 맹세하며 3차의 출격 전에서 대양 선봉에서 돌진하더니, 이번 부산 싸움에서도 역시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다가 적의 대철환에 머리를 맞아 전사하였으니 극히 慘痛할 뿐입니다.¹¹⁷⁾

녹도만호 정운은 … 이번 부산포해전에서도 몸을 던져 제 죽음을 잊고 앞에 나서서 적의 소굴을 공격하였습니다. 종일토록 싸워서 적을 꼼짝도 못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오직 정운의 공 때문이었습니다.¹¹⁸⁾

114) 『이충무공전서』 권2, 「唐浦破倭兵狀」.

115) 『이충무공전서』 권2, 「見내梁破倭兵狀」.

116) “於是舜臣與運麾旗回櫓急與之戰 砲鼓動天 矢石如雨 賊氣奪初放火 後不可復發 諸將及億祺 亦連進殊死戰大破之 悉焚其船 浮屍蔽水 腥血漲海 … 是日之捷 全船捕捉者 無慮七十餘隻 而運之獨當者過半(『은봉전서』 권7, 「부산기사」).”

117) 『이충무공전서』 권2, 「釜山破倭兵狀」.

이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부산포해전까지 녹도만호 정운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이순신이 부산포해전의 승첩은 정운의 전공 때문이라고 한 것은 이 해전에서 그의 활약이 어떠한가를 잘 설명해준다. 그런데 이것은 곧 녹도만호 정운이 이끈 녹도 수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 해전에서 정운의 순국은 이순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초기해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였던 녹도진은 이후 정유재란 시에도 그것을 이어갔는데 절이도해전에서의 활약이 그것이다.

고금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1598년 7월 16일 진린이 이끈 명나라 수군과 합류하여 조명연합수군을 결성하였다. 이후 이들은 사로병진작전에 수로군으로 서로군과 합류하여 왜교성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수로군은 왜교성전투를 앞둔 2개월 전 홍양(현 고흥) 해역에서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절이도해전이었다.

이 절이도(현 고흥군 금산면)는 녹도진 바로 앞, 섬으로 조선 초기부터 홍양 관내 최대의 목장이 있었던 곳이며, 전라좌도에서 우도로 통하는 해로이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절이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고금도와 진도가, 동쪽으로 순천과 여수가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수군이 절이도를 침범한 것은 연합수군이 전라좌도 해안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배경이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절이도해전이 시작된 것은 진린의 명나라 수군이 고금도에 합류한 지 이틀 뒤인 1598년 7월 18일부터였다. 이날 일본 함대 100여 척이 녹도진 앞바다에 침범하였다는 첩보가 고금도 연합수군에게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합수군은 각 군의 전선을 거느리고 일본 함대 쪽으로 이동하였다. 연합 수군이 녹도진 서남방의 금당도에 이르렀을 때, 두 척의 일본 군선이 나타났는데, 연합 수군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달아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절이도해전의 첫 출전은 일본군의 도주로 끝나게 되었다. 이날 이순신과 진린은 금당도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118) 『이충무공전서』 권2, 「請鄭運追配李大源祠狀」.

날인 19일에 고금도로 돌아왔는데 이때 녹도진 지휘관이었던 만호 송여종으로 하여금 절이도와 녹도진 일대를 지키게 하였다.¹¹⁹⁾

당시 매복장의 임무를 겸하고 있었던 녹도만호 송여종은 관옥선 8척을 지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고, 30척의 전선을 동원한 진린 휘하의 명나라 수군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던 중 24일 새벽 일본군의 군선 11척이 바다에 안개가 낀 것을 틈타 절이도 해안을 향하여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녹도진 수군이 일본군의 정세를 탐지한 후 그들의 침투를 예측한 뒤였다. 따라서 송여종의 녹도 수군은 엄폐된 해안지역에 미리 전선을 숨겨두고 일본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일본 군선이 가까이 다가오자 녹도진 수군은 일제히 화포를 발사하여 격파에 나섰다. 그리하여 일본 군선 대부분이 격파되고 일본군 수십 명이 사살되었다.¹²⁰⁾

절이도해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충무공전서』 「행록」 등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선조실록의 경우 일본군 71명의 머리를 베었다고 되어 있으며,¹²¹⁾ 『난중일기』에 의하면 “매복장 녹도만호 송여종이 전선 8척을 이끌고 절이도에서 일본 군선 11척과 싸워 6척을 포획하고, 일본 병사 69명의 머리를 베어 용맹을 떨치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다.¹²²⁾ 반면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행록」에는 “송여종이 절이도에서 포획한 일본 군선 6척을 직접 고금도 수군진으로 끌어들여 바쳤다.”라고 되어 있다.¹²³⁾ 이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일본 군선 6척을 포획하고 일본 병사

119)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1 행록.

120) 조원래, 『왜교성전투와 광양만해전 그리고 노량해전』, 『정유재란사』, 범우사, 2018, 304~305쪽.

121)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4일(병진).

122) 이 기록은 현충사에 소장된 『충무공유사』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기존에 알려진 2종의 『난중일기』에 없는 32일 치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절이도해전과 관련된 내용은 7월 24일 일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伏兵將鹿島萬戶宋汝惊斂戰船八隻 遇賊船十一隻于折爾島 全捕八隻 斬首六十九級 買勇還陣”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23)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1 행록1.

69명을 살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일본 군선 중에는 격침되었거나 파손되어서 끌고 오지 못한 군선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의 전사자 역시 목을 벤 숫자 이외 더 많은 전사자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일본군은 위 기록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²⁴⁾

이 절이도해전의 결과는 당일 즉시 고금도 연합수군 사령부에 보고되었다. 이때 전투 결과를 연합수군의 지휘부에 최초로 알린 것은 명나라 수군 측이었다. 당시 사령부에서는 통제사 이순신이 진린을 위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진린의 부하가 절이도로부터 달려와 전투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보고의 내용은 새벽녘에 일본군과 싸웠는데 조선 수군은 그들은 모조리 포획하였던 것에 반해 명나라 수군들은 바람이 거세어 싸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들은 진린은 그 부하에게 술잔을 내던지며 크게 화를 내고 말았다. 연합 수군이 결성된 이후 최초의 합동작전에서 명나라 수군의 무능력이 그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조선 수군이 그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용맹하게 싸운 반면 명나라 수군은 접근조차 하지 못했으니 명나라 수군 총사령관으로서 조선의 통제사 이순신에 느꼈을 치욕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순신은 절이도해전의 전공 대부분을 진린의 공으로 돌렸다.¹²⁵⁾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상황을 조선 조정에게 별도로 보고하였다.¹²⁶⁾

위에서 언급했듯이 절이도해전은 고금도의 연합 수군이 전라좌도 해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려 했던 일본군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즉 전라우수영에서 좌수영으로 통하는 해로의 요충이었던 절이도를 장악함으로써 일본군의 근거지였던 왜교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해전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왜교성과 사

124) 절이도해전에 대해서는 제장명, 「절이도해전 관련 몇 가지 문제들」, 『이순신연구논총』 28,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7을 참조하기 바람.

125)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1 행록.

126)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13일(병인).

천성 방면으로 모두 퇴각하여 전라좌수영 서쪽 해상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절이도해전의 승리로 연합 수군은 뒤에 벌어진 사로병진작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¹²⁷⁾ 한편으로 이 해전의 승리는 고니시 유키나가 군사의 왜교성 방어전략에 큰 타격을 주었고, 중전기 조선 수군의 사기를 크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해전의 승리는 명량해전 이후, 일본군의 보복 공격이 집중되어온 전라도 연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침략군을 응징한 승리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¹²⁸⁾ 이 승리를 주도한 것이 바로 녹도 수군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임진왜란 시기 녹도진의 海戰 전과

해전지	녹도만호/ 전투편제	전과(전선)	전과(기타)	기타
옥포, 적진포	정운/후부장	대중선 4척 분멸	다량의 각종 군수물 노획	
사천, 당항포, 울포	정운/ 좌척후장	대선 12척 분멸		사천해전에서 여타 수군진과 합동 전과
		대선 3척 분멸	당항포해전에서 동래 출신 조선인 포로 탈취	녹진진 전과
한산도	정운/ 좌척후장	층각대선 2척 격파	적병 3명 참수, 아국인 2명 생포	한산도해전에 서 포획한 적선 70여 척 대부분 녹도 수군 공로

127) 사로병진작전은 조명연합군이 경상도 울산에서부터 전라도 순천까지 해안선에 포진된 일본군을 섬멸하기 위해 펼쳐진 작전이었는데 그 시작 시점은 대략 1598년 9월 20일경이었다.

128) 조원래, 앞의 논문, 305~306쪽.

부산포		적선 100여 척		녹도만호 정운 순국, 녹도수군이 주도적으로 활약
절이도	송여중/매복장	적선 6척 포획	적병 69명 살상	

이상 임진왜란 시기 녹도진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¹²⁹⁾ 평상시 녹도진은 수많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다양한 해전을 치렀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군비 확충 및 정비와 수군의 훈련 등을 강화하여 전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녹도 수군은 평상시 전력화 또는 정예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한 녹도진은 그 활약이 여타 수군지에 비해 도드라졌는데 이에 대한 것은 이순신의 여러 장계 기록에서 입증하고 있다.

V. 맺음말

녹도진은 조선 초기 즉 1398년(태조 7)경 이전에 설치되어 1895년 군제 개편 시 폐진 되었다. 녹도진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이 수군진 일대가 왜적의 주요 통로, 해양 방어의 요충지였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던 것, 조양현과 보성군의 출입 해로였던 득량만에 출몰하는 왜구 방어와 함께 목장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녹도진의 기능은 해양 방어, 병선 건조와 관리, 목장 관리, 봉수 또는 요망대 관리, 송전 관리, 유배인 관리 감독, 조운선 호송 등이 있었다. 녹도진 설치 당시에는 500여 명의 수군·인리가 배속되었다. 이후 1457년(세조 3) 1월경 인근 축두진의 혁파로 인해 770여 명의 수군·인리가

129) 임진왜란 이후 즉 조선후기 녹도진의 활약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나 지면 사용 한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배속되었다가 『경국대전』이 완성될 즈음에는 340여 명의 수군·인리가 활동했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녹도진이 설치된 시기에 이 수군진 만호는 중선 6척 별선 2척을 지휘하였는데 1429년(세종 11)경 전라도 각 만호진의 군선 이동이 있을 때 녹도만호는 중선 4척과 별선 4척을 지휘하였던 것으로 여겨졌다. 『경국대전』이 편찬될 즈음에 녹도만호는 대맹선 1척, 중맹선 2척, 소맹선 3척, 소맹선 3척, 무군맹선 3척을, 명종대에 새로운 군선인 판옥선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을 지휘하였다. 그런데 이것들은 19세기경이 되면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녹도진에서 진성이 존재했었다. 이 진성은 성종대 전국 수군진의 축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는데 그 시기는 1485년(성종 16)경이었다. 이때 축성된 녹도진성은 둘레 2천 20척, 동서 길이 8백 10척, 남북의 너비 4백 4척이었으나 후대로 가면서 규모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세기 기록에 따르면 녹도진에는 공공건물이 즐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일부 공공건물은 손상을 입어 퇴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녹도진의 재정 운영 상태는 상부 기관에 상납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웠다. 이것은 당시 녹도진의 아전배와 노복들이 고초를 이기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려 여러 관사가 텅 빈 가운데 지휘관인 만호가 먹고살 방도마져 막연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평상시 녹도진은 수많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다양한 해전을 치렀다. 그 때문에 평소에 군비 확충 및 정비와 수군의 수조훈련 등을 강화하여 전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녹도진 수군은 평상시 전력화 또는 정예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시 녹도진 수군의 활약상에서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0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사료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현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신증동국여지승람』, 『비변사등록』, 『신증승평지』,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난중일기』, 『증보문헌비고』, 『이충무공전서』, 『호남읍지』, 『신증홍양지』, 『홍양지』, 『전라좌수영계록』, 『녹도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가리포진진지급사례개록성책』, 『징비록』, 『은봉전서』, 『반계수록』.

□ 단행본

김재근, 『조선왕조군선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6.
김정호 편, 『전남의 지도』, 사단법인 향토문화진흥원, 1994.
김재근, 『한국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변동명, 『여수해양사론』,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 논문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정청주, 「전라좌수영의 역사」,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정문사, 1993, 10~20쪽
노미화, 「조선후기의 조운제도에 관한 소고」, 『녹우회보』 19,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1997, 122~136쪽.
조원래, 「왜교성전투와 광양만해전 그리고 노량해전」, 『정유재란사』, 범우사, 2018, 299~334쪽.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군선 목재 관리와 조달」, 『해양문화연구』 4,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121~152쪽.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장군도성 축조과정 및 배경과 이량장군」, 『역사학연구』 54, 호남사학회, 2014, 33~61쪽.

Abstract

A study on the Nokdo Su-gun-jin of Heungyang-hyeon in the Joseon Dynasty

Song, Eun-Il

Nokdosugunjin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round 1398 (Taejo 7), and was abolished in 1895 during the military system reorganization. The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Nokdojin wa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round this naval base, which was a major route for Japanese pirates and a strategic point for maritime defense, and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ranches along with the defense of Japanese pirates appearing in Deukryang Bay, which was the sea route for the entry and exit of Jo Yang-hyeon and Boseong-gun.

The functions of Nokdojin included maritime defense, building and managing warships, ranch management, beacon or watchtower management, power transmission management, supervision of exiles, and escort of transport ships.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Nokdojin, there were about 500 naval and personnel officers, and around January 1457 (Sejo 3), there were about 770 officers, and around 340 officers when the Gyeongguk Daejeon was completed. This situation continued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Nokdojin was established, this naval base commander commanded six medium-sized ships and two separate ships. Around 1429 (Sejong 11n), he commanded four medium-sized ships and four separate ships. Around the time the Gyeongguk Daejeon was compiled, he commanded one Daemaeng ship, two medium-sized ships, three small-sized ships, and

three military-sized ships.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he commanded one warship, one military ship, and two sahu ships. However, by the 19th century, most of these had become dilapidated or damaged and were left abandoned. Nokdojin had a jinseong (fortress). This was built as par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naval bases nationwide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round 1485 (Seongjong 16). According to records from the 19th century, Nokdojin was home to many public buildings. However, some of these buildings were damaged and left in a state of decay. The financial management of Nokdojin was very difficult due to tributes to higher-level organizations. Thi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at that time, the subordinates and servants of Nokdojin were unable to overcome the hardship and ran away, leaving many government offices empty and the commander, Manho, in a situation where he had no idea how to make a living.

Nokdojin fought various naval battles due to the invasion of numerous Japanese pirates during normal times. Therefore, it was prepared for war by strengthening military supplies and maintenance, and training the naval forces. Because of this, it was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victory of the Joseon navy during the Imjin War.

keywords :

Nokdosugunjin, Heungyanghyeon, maritime defense, Imjin War, sea fight